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적게 넣고
금식에서 적게 담고
외식에서 적게 먹고



생활속 절주 실천수칙
1.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2.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원서울 하지 않는다.
4. 폭언주를 마시지 않는다.
5.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술, 담배) 끊고! (소금, 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건강한 부산만들기」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888-3312~5), 16개 구·군보건소



부산체육
2018 vol.14 07+08



08



02



16



22

부산체육

부산체육 2018 07+08 통권14호

발행일 2018년 8월 06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4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박주현, 최상욱, 김인근,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T. 051-500-7900 F. 051-505-6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디자인 대훈기획(T. 051-898-0330)



사람과 사람

02 파워 인터뷰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정정복 회장

04 이달의 칼럼 언론사 기자(이병욱 국제신문 스포츠부 차장)

이달의 이슈

06 찾아가는 스포츠 푸드트럭

스포츠 속으로

08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

부산의 스포츠 소식

12 부산 학교체육의 비전 및 방향

14 제13회 여성체육대회

16 2018 레크리에이션 교실

18 제2회 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부산지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20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2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23 생활체육광장

24 제29회 부산광역시장기 게이트볼대회

25 부산스포츠클럽 영재교실

26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프로젝트

27 국민체력 100사업

28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30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32 구·군체육회 소식

43 스포츠클럽 소식

44 회원종목단체 소식

48 회원종목단체 현황

스포츠 뉴스

49 전국 5개 권역별(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신설

50 생활체육 '스포츠730' UCC·사진 공모전 개최

51 스포츠730봉사단 5기 발대식 및 교육 시행

'2018년 소통하는 체육단체 워크숍' 개최

52 1920년 출범 대한체육회, 창립 98주년 기념식 개최

53 2018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54 여름철 식중독

이달의 스포츠

56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스포츠의 제왕, 축구

문화 속으로

60 축구 책과 영화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정정복 회장



한때 '축구 명가'라 불리기도 했던 부산.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A매치가 단 한 차례도 치러지지 않았을 정도로 부산축구는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안타까운 여건 속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있다. 지난해 11월 제21대 부산광역시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출, 부산축구 발전을 위해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정복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7월,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정정복 회장을 만났다. 러시아 현지로 월드컵대회 참관을 다녀온 그는 축구를 향한 전 세계인의 열정을 읽고 보다 깊은 통찰로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여름 밤의 뜨거운 축제였던 월드컵이 모두 끝났다. 매 경기가 치러질 때마다 환희와 탄식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는 태극전사를 응원한 우리 국민들에게 젖은 아쉬움을 남겼다. 러시아에 다녀온 정정복 회장은 “결과는 아쉬웠지만 현지에서 배운 점이 많다. 국제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기획되는지 전반적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A매치, 단순한 축구행사가 아닌 시민의 문화 권리

그는 A매치(국가대표팀 경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이후 부산 전체에 ‘빅 이벤트’가 없었다. 월드컵대회 같은 큰 행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누려야 될 문화적 권리이다. 부산의 A매치는 부산시민들의 문화 권리이다”며 “오는 가을 세계 최일류팀과의 A매치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축구전용구장 건립으로 A매치 유치, 관중 확보는 물론 전국적으로 겨울 기온이 따뜻한 부산으로 타 지역 구단 전지훈련과 관광명소 홍보 등 인프라 구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단 스포츠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노릴 수 있다. 정정복 회장은 “경제발전이라고 하면 보통 공장을 많이 지어서 뭔가를 생산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요즘에는 맞지 않다.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느낀 점이 월드컵대회 같은 대형 행사가 엄청난 인파를 불러 모아 결국엔 대기업 못지않은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며 이제는 스포츠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로 세대, 지역, 국가 간의 갈등 해소

공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던 그 때 그 시절을 지나온 정정복 회장에게 축구는 상대방과의 교감이다. 축구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축구의 상징인 월드컵대회만 봐도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또한 오늘 비록 승리해도 그 승리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인생사 큰 교훈을 주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축구는 사람을 통합시키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스포츠 중의 스포츠다.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축구협회는 분주한 모습이다. 정정복 회장은 “축구뿐만 아니라 전 종목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역시 힘을 보태겠다. 부산축구가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포츠 문화·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답이다

지난 5월 2일 새벽 한 통의 메시지에 잠을 깼다. “마침내 부산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부산시탁구협회 양재생 회장이 국제탁구연맹(ITU) 총회가 열린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탄전한 ‘금보’였다. 순간 ‘와!’하고 짧은 탄성을 내질렀다. 달디 단새벽잠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그렇게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부산 유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게 됐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는 가히 ‘쾌거’로 불릴 만하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130여 개 국이 참가한다. 올림픽대회와 월드컵대회, 세계육상경기대회 등 소위 ‘세계 3대 스포츠 축제’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규모나 열기 등은 이들 이벤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부산은 애초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미국 산호세 등과의 유치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대한탁구협회와 부산시탁구협회 등이 뚫뚫 뭉쳐 예상 밖의 쾌거를 이뤄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탁구 스타인 유남규·현정화 감독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의 측면 지원 사격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의 견인차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은 물론 도시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로 부산에는 수십 개의 경기장이 새로 지어졌고, 도시 인프라도 대거 확충됐다. 당시 북한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이 부산을 찾아 전 세계에 부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내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추정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5500억 원에 이르렀다. 스포츠 이벤트를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외화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이후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아예 씨가 말라버렸다. 누구보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부산시민들은 15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스포츠 이벤트를 접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2004년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의 친선 경기 이후 부산에는 지금까지 축구 A매치(국가대표팀 경기)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 첫 승의 장소이자 한국 축구의 ‘성지’로 여겨지는 부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 이제는 실현 가능성에 집중할 때

부산시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올림픽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가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 2020년 올림픽대회 유치를 선언했다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밀려 계획을 접었다. 이어 2028년 대회 유치를 희망했으나 준비 부족 탓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미국 로스앤젤레



스가 개최지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부산광역시가 올림픽대회에 목을 맨 사이 다른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그만 것도 갖지 못하면서 너무 큰 것만 쫓는 우를 범한 결과다.

굳이 ‘메가 이벤트’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각 종목별로 다양한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거나 신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포츠 문화는 활성화 된다. ‘부산오픈챌린저테니스 대회’가 좋은 예다. 부산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뜻을 모아 조그맣게 시작한 이 대회는 어느덧 국내 최고 권위와 규모의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부산 슈퍼컵 유토대회 역시 처음 시작은 미미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부산은 국내 3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 농구의 프로 구단 연고지다. 이를 구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시즌 기간 외국 프로팀을 부산으로 초청해 소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롯데 자이언츠와 일본·중국·대만의 프로팀이 경기를 갖거나 부산 아이파크가 동남아나 중국, 일본 팀과 친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연고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프로팀과 자체, 종목별 협회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부산시민들이 1년 내내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것, 결코 어렵지 않다. 조선·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침체가 장기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병욱
국제신문 스포츠부 차장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선사하는

찾아가는 건강밥상
스포츠 푸드트럭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선수촌 식당'을 통해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있는 메뉴를 제공했다. 학교 운동부 출신의 스포츠 재능나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밥상 스포츠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다.

이에 올해 신청한 학교는 만덕중학교·낙동고등학교 핸드볼부, 부산정보고등학교 야구부·축구부, 센텀중학교 야구부, 영남중학교·장림여자중학교 태권도부, 해동고등학교 유도부로 운동부 꿈나무들이 건강 식단을 제공받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만덕중학교·낙동고등학교 핸드볼부 관계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에게 훈련 방법과 운동을 하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부산정보고등학교 축구부 이민성 코치는 "현재 4년째 부산정보고등학교 축구부 코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며 "스포츠 푸드트럭이 힘든 선수생활에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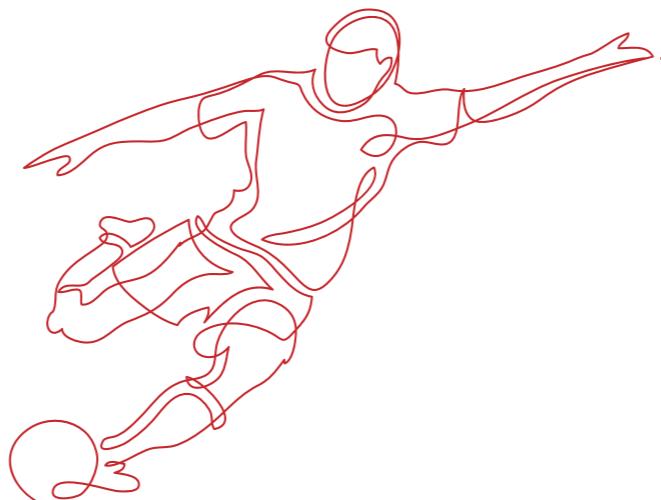
이번 스포츠 푸드트럭 운영이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스포츠 재능나눔을 통해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골든벨'을 통해 사회자가 퀴즈를 내고 선수들은 ○·× 정답을 맞히는 것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문제를 다뤘다. 꿈나무들은 즐겁게 웃으며 문제를 풀었으며 패자부활전이 있어 참가 학생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내년에 스포츠 푸드트럭 운영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가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건강밥상의 주 메뉴는 목살·안심스테이크로 선수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따뜻하고 맛있었다!"라며 "우리를 지도하는 감독, 코치님께도 항상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희와 눈물”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
이번의 연속으로 새 역사를 쓰다



프랑스, 20년 만에
월드컵대회 우승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반전의 역사를 쓴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가 막을 내렸다. 한여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로 밤잠을 설치게 한 월드컵대회. 때로는 기쁨과 환희로, 때로는 탄식과 눈물로 기억되는 대회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이 훌린 땀과 열정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역시 프랑스였다. 지난 6월 14일 막을 올려 한 달 동안 전 세계 축구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던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가 프랑스의 우승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프랑스는 7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4대2로 대승을 거두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998년 대회 우승팀인 프랑스는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우승이라는 영광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의 이번 대회 시작은 씩 좋지 않았다.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VAR(Video Assistant Referees, 비디오판독시스템)에 힘입어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다. 2·3차전 폐루와 덴마크와의 경기에서도 우승 후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토너먼트 무대에 들어서자 프랑스의 경기력은 한 단계 성장했다. 16강에서 메시가 베티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꺾은 데 이어 만만치 않은 상대인 우루과이와 벨기에를 꺾으며 당당히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다. 결승전에서는 전후반 두 골씩 뽑아내는 파괴적인 공격력으로 크로아티아를 제압했다. 이번 대회 프랑스는 폴 포그바, 키리안 음바페, 라파엘 바란 등 어린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크로아티아의 선전 또한 눈부셨다. 말 그대로 ‘쳤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록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선수들 모두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조별 예선에서 3승을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한 크로아티아는 덴마크와의 16강전을 거쳐 8강 러시아전, 준결승 잉글랜드전 모두 연장승부 끝에 승리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프랑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셈이다. 체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대회 사상 첫 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트 사커의 벽을 넘지 못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의 월드컵대회,
더 이상
절대 강자는 없다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축구대회는 지난 대회까지 총 20회 개최되었다. 그 중 본선에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브라질(21회 개근)이 5회 우승했고, 초창기부터 꾸준히 우승을 적립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나란히 4차례 정상에 등극했다. 초대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2회 우승을 차지했다.

2회 이상 우승을 경험한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5팀을 보통 월드컵대회의 5대 전통 강호라고 부른다. 이들 이외에 잉글랜드(1966), 프랑스(1998) 그리고 스페인(2010)은 각각 한 차례 우승을 경험한 팀들로, 결승 문턱에 꾸준히 진출하진 못했지



사진제공 대한축구협회



스포츠 속으로. “질의와 눈물”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



사진제공 대한축구협회



만 기회가 왔을 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팀들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달랐다. 8강전에서 5대 전통 강호들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있었다. 유럽의 터줏대감 이탈리아는 아예 본선에 참가하지도 못했고, 본선에 참가한 독일은 멕시코와 대한민국에 2패를 당하며 처음으로 월드컵대회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 ‘원맨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짚은 피로 뭉친 프랑스에 3대4로 패했다. 스페인은 개최국 징크스에 눈물을 흘렸다. 러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끓은 것. 그리고 우루과이가 에딘손 카바니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서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패했다.

브라질의 탈락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 브라질은 본선 직전 평가전 시리즈에서도 연거푸 완승을 챙겨 우승 진선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하지만 벨기에와의 8강전 전반 2실점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후반 대반격에 만회골이 나오면서 영파를 면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세계 1위’ 독일 울린 1%의 기적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 단 1%였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 어렵게도 16강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 독일전을 앞두고, FIFA 랭킹 1위 독일과 15위 멕시코, 24위 스웨덴과 F조에 속한 한국의 전적은 2패였다. 스웨덴에 0대1, 멕시코에 1대2로 겨우 2패를 안은 상태에서 16강 진출 1% 가능성을 두고 결전을 벌일 팀은 막강 수비진을 자랑하는 ‘전차군단’ 독일이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 우승국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이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던 상대인 독일. 그러나 한국은 보란 듯이 디펜딩 챔피언(Defending Champion)을 2대0으로 제압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이 기록한 3골은 모두 후반 추가시간에 나왔다. 멕시코전에서는 후반 48분에 손흥민의 극적인 만회골이 터졌다. 그리고 독일전에서도 모

두 무승부를 예상하던 후반 48분 코너킥으로 득점했고 이어 후반 51분에는 손흥민이 텅빈 골대를 향해 추가골을 터뜨렸다. 3골이 모두 추가시간에 나온 것은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선전도 자극이 됐다. 4년 전 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 때만 해도 아시아 팀들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일본, 이란, 호주 등 4개국의 조별리그 성적은 3무9패. 4개국이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당연히 16강에 진출한 팀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에서 아시아 팀들은 180도 달라졌다.

이렇게 축구는 변화, 발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변방의 한국 대표팀이 세계 1위 독일을 맞아 2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는 과거 “축구는 단순하다. 22명이 90분간 볼을 쫓고 나면 경기는 끝나고, 독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경기”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이날 경기를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축구는 지금도 22명이 90분간 볼을 쫓고 나면 끝나는 경기지만, 독일은 더 이상 늘 이길 수 없다”면서 “이전 버전은 과거 역사에만 해당하는 결로 국한한다”고.

예선전적 1승 2패. 본선 32개 참가국 중 19위의 성적으로 신태용 호는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를 마무리지었다.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큰 박수도 받았지만, 진한 아쉬움과 함께 많은 과제도 남겼다. 앞으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개편해야 한다.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자부심에서 벗어나 이란과 일본이 일취월장한 세계 축구계를 똑바로 직시하고 한국축구의 중흥을 다시 한 번 기약한다면 2001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4강의 영광을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제 축구팬들은 또 다시 4년의 기다림과 마주하게 됐다. 다음 개최지는 카타르다.





부산 학교체육의 비전 및 방향

손승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학교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로서, 유·청소년 생애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덕·체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존중과 배려, 협동심, 인내심, 응집력, 스포츠맨십, 호연지기 등을 배울 수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적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 학교체육

부산의 학교체육은 1학생 1스포츠 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학교체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학교체육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점과제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 및 교과연구회를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스포츠강사, 중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전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제공으로 체육진로코칭스쿨과 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학생 체육과 고등학교 체육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체력을 강화하고 저체력,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을 위해 클럽 운영을 의무화하고 학생 주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 선발된 팀에 한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4개 종목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시체육회, 대학, 회원종목단체)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으로 우수학교스포츠클럽 700팀, 월 1회 Sports Holic Day, 방학 중 스포츠캠프 운영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인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및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부산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을 통해 우수선수 조기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 학교운동부 청렴도 조사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

정부의 학교체육 정책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기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체육특기자 발굴 및 육성에 집중되던 학교체육의 양상이 이제는 일반학생을 포함하는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초·중·고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체육축제 개최’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역시 학교체육 전반에 걸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학교체육의 방향은 21세기 사회에서 요청되는 핵심 자질, 즉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에서 제안한 인간 본연의 가치 구현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측면에 관심을 갖고 체육교과 수업의 변화,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사회성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체육 확대, 1학생 1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교 내·외의 체육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 동호인들의 스포츠 축제
여성체육대회가 13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는 체육활동을 통해
꾸준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여성들의 체육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6월 22일(금) 사직실내체육관 본구장 외 5개소(실내체육관 본구장, 실내체육관 보조 A·B구장, 아시아드 볼링장,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여성체육동호인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학기공, 배구, 볼링, 체조,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16개 구·군 체육회 여성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는 종목별 구·군 대항전으로 진행되어 승패를 떠나 다 같이 즐기는 체육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다.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여성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여성체육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진정한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여성들의 체육 참가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결과

종 목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또는 장려	
국학기공	연제구	사상구	동구	수영구
배구	북구 3040	연제구	동래구	북구 A
볼링	기장군	강서구	해운대구	동래구
체조	사상구	연제구	남구	북구
탁구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서구
테니스	부산진구	금정구	남구	-
배드민턴	동래구	영도구	사상구	-





가족과 함께 평소 접해보지 못한 여름철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해양레포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들의 해양스포츠 참가는 협동심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며, 각종 해양스포츠 장비와 기술을 습득하므로 지적 능력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스포츠](#)이다.

여름철 무더위는 해양스포츠로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양일간 송도해수욕장과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 가족·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2018 해양레크리에이션 교실이 운영되었다. 부산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했던 이번 레크리에이션 교실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해양레크리에이션 교실은 카약, 고무보트, 동력보트, 바나나보트 등 기구를 이용한 해양스포츠체험 프로그램과 수상안전을 교육하는 이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양일간 알차게 진행되었다.

배움과 즐거움의 시간

참가자들은 “방학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번 레크리에이션 교실에 가족과 함께 참가했는데, 평소 접하지 못한 [스포츠](#)를 배워서 즐거웠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체험해보니 다음에 또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통해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즐겁고 안전하게 해양스포츠 즐기기

첫째, 물놀이를 하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인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셋째,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한다. 넷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다섯째,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안전요원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한다. 다섯 가지 기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즐겁고 안전하게 바다와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 9개 스포츠클럽 회원들의 체육한마당 제2회 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부산지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부산지역 공공스포츠클럽(거점·지역) 회원들의 가장 큰 교류대회인 '제2회 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부산지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지난 6월 10일 그 열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한 이번 교류전은 정식 2개(배드민턴, 수영) 종목에서 부산지역 공공스포츠클럽 8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대회개요	
• 대회명	제2회 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부산지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 일시	2018. 6. 10(일) 09:30 ~ 18:00
• 개회식	2018. 6. 10(일) 09:30
• 장소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수영),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센터체육관(배드민턴)
• 참가규모	850명(선수 800명, 심판·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50명) -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서구스포츠클럽, 동래스포츠클럽, 북구스포츠클럽, 해운대구스포츠클럽, 신나는 사상스포츠클럽, 금정-부산외대스포츠클럽, 사하스포츠클럽
• 주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 주관	부산진구스포츠클럽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광역시체육회



●● 이번 교류대회는 2013년부터 부산지역에서 만들어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스포츠클럽을 포함한 9개 클럽이 모두 모여 수영,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의 회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부산지역 스포츠클럽은 거점스포츠클럽을 포함하여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부산서구스포츠클럽, 동래스포츠클럽, 부산북구스포츠클럽, 해운대구스포츠클럽, 부산진구스포츠클럽, 금정-부산외대스포츠클럽, 사하스포츠클럽으로 총 9개 클럽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스포츠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체육 선수까지 육성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앞서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부산지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내년에는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여 스포츠클럽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최고의 교류대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열정이 전북으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미리보기

체육인들의 축제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2일(금)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 성대한 막이 오른다. 전북 익산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이후 15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어 다시 전북을 찾을 수 있다.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7일 동안 47개 종목(정식46, 시범1)에 약 2만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현재 72개 경기장을 선정하여 준비 중이다.

이번 대회는 성화봉송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총 99구간 990km에서 성화봉송이 이뤄진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의미에서 양대체육대회 성화를 동시에 봉송한다. 또 기접놀이와 자전거행진(전주), 모노레일 봉송(무주), 말을 이용한 봉송(장수), 치즈테마 봉송(임실), 신관사또 행사(남원) 등 시군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특별봉송도 펼칠 예정이다.

시·군별 경기장 현황

시·군	경기 종목
익산	육상, 야구, 소프트볼, 복싱, 펜싱,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 배구, 에어로빅, 철인3종, 검도, 볼링
군산	축구, 야구, 댄스스포츠, 수상스키, 조정, 우수, 카누, 탁구, 골프
전주	수영, 스쿼시, 산악, 당구, 택견, 농구, 핀수영, 트랙자전거, 체조(기계, 리듬), 볼링
정읍	핸드볼, 씨름
김제	하키, 근대5종(승마), 축구, 세팍타크로
남원	레슬링, 룰러, 궁도, 테니스
완주	근대5종(펜싱, 수영, 복합), 배구, 테니스, 볼링, 자전거, 핀수영
장수	승마
무주	태권도
진안	자전거(도로), 역도
임실	양궁, 사격
순창	정구
고창	유도, 럭비
부안	세일링(요트), 바둑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대회 엠블럼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국새, 관인) 이미지를 프레임화 하여 천년고도 전라북도의 자랑 거리를 유쾌하게 라인 아트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블랙 컬러를 과감히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회 마스코트는 삼국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서동왕자 : 백제 위덕왕의 증손)과 처녀(선화공주 :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의 결혼을 모티브로 주 개최지 익산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대회 구호인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의 의미를 함께 담아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기회제공을 위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은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의 균형적 건강을 도모하고 성취감 및 도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청소년들의 실내·실외 스포츠 참가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친 일상에서 주말 체육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30주간 축구·배드민턴·골프·탁구·농구·족구·수영·펜싱·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받는다. 이는 성장기에 학우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른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사업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 대상 주말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의 1인 1스포츠로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학교 안 프로그램'과 지역체육시설과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거점, 지역)스포츠클럽의 사업 참여로 인해 '학교 밖 프로그램' 활성화로 1,400여 명의 학생들이 더 많은 스포츠 참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홈페이지 (<http://sat.spor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광장



● 부산지역 16개 구·군 생활체육광장 현황

운영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
중구/ 중앙공원광장	06:00 ~ 07:00	국학기공
서구/ 서구청광장	06:00 ~ 07:00	생활체조
동구/ 동구청광장	06:00 ~ 07:00	국학기공
동구/ 동일중앙초등학교	06:00 ~ 07:00	국학기공
영도구/ 부산해사고등학교 강당	06:00 ~ 07:30	태극권
영도구/ 남항대교 밑 수변 테마공원	06:00 ~ 07:00	우 슈
부산진구/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06:00 ~ 07:00	국학기공
부산진구/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06:00 ~ 07:00	국학기공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향기의숲)	06:00 ~ 07:00	국학기공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05:30 ~ 06:30	에어로빅
동래구/ 금강공원광장	05:30 ~ 06:30	에어로빅
남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풋살구장	06:00 ~ 07:00	라인댄스
북구/ 백양근린공원	06:00 ~ 07:00	생활체조
북구/ 덕천초등학교	06:00 ~ 07:00	기공체조
해운대구/ 장산대천공원	06:00 ~ 07:00	국학기공
해운대구/ 센텀마리나파크 내 잔디공원	06:20 ~ 07:20	국학기공
사하구/ 다대낙조 분수대	06:00 ~ 07:00	국학기공
사하구/ 에덴공원	06:00 ~ 07:00	생활체조
사하구/ 주민어울마당	06:00 ~ 07:00	국학기공
금정구/ 구서초등학교	06:00 ~ 07:00	국학기공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갈매길	07:00 ~ 08:00	생활체조
연제구/ 부산시청 녹음광장	19:30 ~ 20:30	국학기공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19:30 ~ 20:30	국학기공
수영구/ e편한세상 농구장	05:00 ~ 06:00	에어로빅
수영구/ 배화학교강당	05:00 ~ 06:00	요가, 에어로빅
사상구/ 서당골약수터	18:00 ~ 19:00	라인댄스
사상구/ 학장천 학장교 인근	06:00 ~ 07:00	건강댄스
기장군/ 정관 좌광천	06:30 ~ 07:30	건강체조
기장군/ 기장 균린공원	06:30 ~ 07:30	국학기공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주민들의 체육활동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자 진행된 이번 사업은 부산지역 29개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동인구가 많으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강당 등에서 광장지도자가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16개 구·군 지역체육시설 및 운동장에서 매일 1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광장 지도자는 생활체육 지도경험이 있는 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동네 생활체육광장은 어디에? ● 생활체육광장 수업에 참가하고 싶은 시민은 16개 구·군 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축제한마당 제29회 부산광역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노년층 사이에서 여가 활용 스포츠로 인기인 게이트볼대회를 찾아가 보았다. 「제29회 부산광역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6월 15일(금) 64개 팀 55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먼저 오전 10시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박희채 생활체육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격려하였다. 정오암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우리 게이트볼은 최근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과 청소년에까지 보급되어 가족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크게 힘이 들지 않아 어르신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활동으로는 최고의 종목이라 생각한다.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데 의미를 두기 바란다”며 대회사를 전했고, 박희채 생활체육위원장은 “보는 스포츠’가 아닌 ‘즐기는 스포츠’가 대세인 지금,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게이트볼을 통해 활력 넘치는 행복을 충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대회는 승패를 떠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는 북구(수정2조)와 기장군(길천)이 막상막하의 실력을 겨루었다. 경기종료 후 합산점수가 높았던 북구(수정2조)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기장군(길천)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 종합성적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장려
북구 수정2조	기장군 길천	중구 1조 /동래구 온천	부산진구 6조 /수영구 3조 /강서구 전등 /사하구 을숙도

● 개인성적

최우수 선수	우수 선수	최고 어르신
북구 이오영, 노현숙	기장군 김희돌, 김점림	사하구 허종욱, 김남기

더 큰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자 부산스포츠클럽 영재교실 수료식



스포츠(수영, 육상)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로 육성했던 부산스포츠클럽의 영재교실(수영영재교실 3기, 육상영재교실 2기) 수료식 현장을 찾아가 보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스포츠클럽 수영영재교실 3기와 육상영재교실 2기의 교육 수료식을 지난 7월 4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수영영재교실 25명, 육상영재교실 15명 등 총 40여 명의 영재교실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전문선수로 전향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산스포츠클럽 영재교실은 비인기종목 저변확대와 학생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체육꿈나무 발굴·육성의 다변화 및 건전한 청소년의 체육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부산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양한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부산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부산스포츠클럽 영재교실이 더욱 번창하여 비인기 종목 및 지역 꿈나무 선수양성 등 부산체육의 를 모델이 되는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건강생활실천운동은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생활터에서 참가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부진한 건강지표를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건강실천 프로젝트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3월 6일(화)부터 6월 14일(목)까지 100일간 ‘(술·담배) 끊고, (소금·설탕) 줄이고, (다 함께) 운동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동참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건강을 생활화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1차 운영 결과 건강나눔 실천자금통 2,300여 개를 회수해 모금된 959만원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전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에 기부된다고 한다.

다가오는 8월 1일(수)부터 11월 8일(목)까지 100일간 건강생활실천운동 프로젝트 2차 운동이 전개된다. 2차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신규 참가는 물론 중도 포기자와 실천율이 저조한 시민들에게 재도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는 스스로 실천 여부를 자율 진단해보는 실천 기록지 및 건강나눔 실천자금통을 줄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건강생활수칙의 생활화를 꾸준히 지속해 간다면 ‘건강한 부산! 행복한 시민!’의 실현을 한발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체력 100사업이란?

국민체력 100사업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하여 개인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이다.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체력 100의 필요성

-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력저하 및 비만 관련 지표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전체 인구대비 4.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참가하여 꾸준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대국민 체력관리서비스(국민체력 100)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체력관리 서비스 이용방법

- 체력인증 대상자는 청소년기(만13세~18세), 성인기(만19세~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이며 별도의 가입비나 검사비용은 없다. 체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체력 100홈페이지(<http://nfa.kspo.or.kr>) 또는, 인근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체력측정은 청소년·성인·노인기로 구분하여 각 연령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항목으로 과학적인 체력측정이 진행된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꿈나무체능단 소식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5월 2일(수) 어린이날을 맞아하여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핸젤과 그雷텔」 뮤지컬을 관람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뮤지컬 관람 이후 부산국민체육센터로 돌아와 어린이날 선물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어서 지난 6월 28일(목)에는 꿈나무체능단 현장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단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산국민체육센터에서 미니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청군 백군으로 팀을 나누어 서로 응원하며 신나게 보냈으며, 겨울왕국을 대신하여 더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 영예로운 송서영 계장 퇴임식

지난 6월 29일(금) 부산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송서영 계장의 정년 퇴임식이 개최되었다. 정년 퇴임식은 감사패 수여와 격려 인사, 퇴임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송서영 계장은 퇴임사에서 “오늘 무사히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받은 믿음과 사랑을 잊지 않고 부산국민체육센터를 떠나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실시

지역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실내축구, 배드민턴 등)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7월 23일(월)부터 8월 31일(금)까지 6주간 진행되며 평소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스러운 여름방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토	노인 48,400	
		C반 월~금	성인 67,100	
07:00~07:50	생활수영	A반 월~금	노인 52,800	청소년 이상
08:00~08:50		B반 월~금	청소년 10,500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성인 여성	
10:00~10:50		B반 화.목.토	성인 51,700	
11:00~11:50	월빙수영 (격일)	A반 월.수금	노인 48,400	
		B반 화.목.토	성인 67,100	
12:00~14:50	성인수영	C반 월~금	노인 52,800	성인 여성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실버수영	노인 48,400	
14:00~15:50	성인수영	화.목(토)	44,000	65세 이상만
		B반 월.수금	성인 51,700	
16:00~16:50	돌고래수영	화.목(토)	노인 48,400	성인 누구나
		A반 월.수금	39,600	
17:00~17:50	하마수영	B반 월.수금	39,600	초1~6년
		화.목(토)	33,000	
18:00~18:50	직장인수영 (격일)	A반 월.수금	39,600	7세~초4년
		B반 월.수금	33,000	
19:00~19:50	직장인수영 (매일)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초1~6년
		B반 월.수금	노인 48,400	
20:00~20:50	직장인수영 (매일)	C반 월~금	성인 67,100	성인 누구나
		D반 월~금	청소년 60,500	
21:00~21:50	야간수영	화.목(토)	노인 52,800	청소년 이상
		월.수금	성인 67,100	
22:00~22:50	주말수영 (배영이상)	화.목(토)	노인 52,800	성인 누구나
		월.수금	성인 60,500	
23:00~23:50	아쿠아로빅	A반 화.목.토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C반 월.수금		
		D반 화.목.토		
		E반 월.수금		
24:00~24:50	자유수영	F반 화.목(토)	45,000	성인 누구나
		G반 월.수금	성인 53,900	
25:00~25:50	월	H반 월~금	노인 33,000	청소년 이상
		I반 월~금	청소년 46,200	
26:00~26:50	월	J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K반 월~금	노인 33,000	
27:00~27:50	월	L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M반 월~금	성인 53,900	
28:00~28:50	월	N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O반 월~금	청소년 46,200	
29:00~29:50	월	P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Q반 월~금	노인 33,000	
30:00~30:50	월	R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S반 월~금	성인 53,900	
31:00~31:50	월	T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U반 월~금	청소년 46,200	
32:00~32:50	월	V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W반 월~금	노인 33,000	
33:00~33:50	월	X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Y반 월~금	성인 53,900	
34:00~34:50	월	Z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A반 월~금	청소년 46,200	
35:00~35:50	월	B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C반 월~금	노인 33,000	
36:00~36:50	월	D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E반 월~금	성인 53,900	
37:00~37:50	월	F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G반 월~금	청소년 46,200	
38:00~38:50	월	H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I반 월~금	노인 33,000	
39:00~39:50	월	J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K반 월~금	성인 53,900	
40:00~40:50	월	L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M반 월~금	청소년 46,200	
41:00~41:50	월	N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O반 월~금	노인 33,000	
42:00~42:50	월	P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Q반 월~금	성인 53,900	
43:00~43:50	월	R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S반 월~금	청소년 46,200	
44:00~44:50	월	T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U반 월~금	노인 33,000	
45:00~45:50	월	V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W반 월~금	성인 53,900	
46:00~46:50	월	X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Y반 월~금	청소년 46,200	
47:00~47:50	월	Z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A반 월~금	노인 33,000	
48:00~48:50	월	B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C반 월~금	성인 53,900	
49:00~49:50	월	D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E반 월~금	청소년 46,200	
50:00~50:50	월	F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G반 월~금	노인 33,000	
51:00~51:50	월	H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I반 월~금	성인 53,900	
52:00~52:50	월	J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K반 월~금	청소년 46,200	
53:00~53:50	월	L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M반 월~금	노인 33,000	
54:00~54:50	월	N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O반 월~금	성인 53,900	
55:00~55:50	월	P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Q반 월~금	청소년 46,200	
56:00~56:50	월	R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S반 월~금	노인 33,000	
57:00~57:50	월	T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U반 월~금	성인 53,900	
58:00~58:50	월	V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W반 월~금	청소년 46,200	
59:00~59:50	월	X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Y반 월~금	노인 33,000	
60:00~60:50	월	Z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A반 월~금	성인 53,900	
61:00~61:50	월	B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C반 월~금	청소년 46,200	
62:00~62:50	월	D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E반 월~금	노인 33,000	
63:00~63:50	월	F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G반 월~금	성인 53,900	
64:00~64:50	월	H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I반 월~금	청소년 46,200	
65:00~65:50	월	J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K반 월~금	노인 33,000	
66:00~66:50	월	L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M반 월~금	성인 53,900	
67:00~67:50	월	N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O반 월~금	청소년 46,200	
68:00~68:50	월	P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Q반 월~금	노인 33,000	
69:00~69:50	월	R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S반 월~금	성인 53,900	
70:00~70:50	월	T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U반 월~금	청소년 46,200	
71:00~71:50	월	V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W반 월~금	노인 33,000	
72:00~72:50	월	X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Y반 월~금	성인 53,900	
73:00~73:50	월	Z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A반 월~금	청소년 46,200	
74:00~74:50	월	B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C반 월~금	노인 33,000	
75:00~75:50	월	D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E반 월~금	성인 53,900	
76:00~76:50	월	F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G반 월~금	청소년 46,200	
77:00~77:50	월	H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I반 월~금	노인 33,000	
78:00~78:50	월	J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K반 월~금	성인 53,900	
79:00~79:50	월	L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M반 월~금	청소년 46,200	
80:00~80:50	월	N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O반 월~금	노인 33,000	
81:00~81:50	월	P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Q반 월~금	성인 53,900	
82:00~82:50	월	R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S반 월~금	청소년 46,200	
83:00~83:50	월	T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U반 월~금	노인 33,000	
84:00~84:50	월	V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W반 월~금	성인 53,900	
85:00~85:50	월	X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Y반 월~금	청소년 46,200	
86:00~86:50	월	Z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A반 월~금	노인 33,000	
87:00~87:50	월	B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C반 월~금	성인 53,900	
88:00~88:50	월	D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E반 월~금	청소년 46,200	
89:00~89:50	월	F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G반 월~금	노인 33,000	
90:00~90:50	월	H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I반 월~금	성인 53,900	
91:00~91:50	월	J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K반 월~금	청소년 46,200	
92:00~92:50	월	L반 월~금	성인 53,900	성인 여성
		M반 월~금	노인 33,000	
93:00~93:50	월	N반 월~금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O반 월~금	성인 53,900	
94:00~94:50	월	P반 월~금	노인 33,000	성인 누구나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D반 월.수.금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11:00~11:50		B반 화.목			
14:00~14:50		C반 월.수.금			
15:10~16:00	생활요가	A반 월.수.금	주3일반 성인 50,600 노인 38,500 청소년 45,100		
16:00~16:50		B반 화.목			
17:10~18:00		C반 월.수.금			
19:00~19:5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C반 월.수.금			

생활체육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06:00~22:00 토 18:50까지	헬스클럽	월~토	성인 47,300 노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배드민턴	A반 B반 C반 D반 E반 I반 J반 K반 L반	월~목 (강습) 금 (자유)	성인 45,100 노인 38,500
18:00~18:50 19:00~19:50 20:00~20:50		A반 B반 C반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월.수.금	38,500
16:00~16:50		A반	화.목	33,000
17:00~17:50		B반	월.수.금	초등 38,500
				청소년 44,000
06:30~07:20 09:00~09:50 09:00~09:50 10:00~10:50 14:00~14:50 15:00~15: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필라테스	B반 C반 G반 D반 F반 I반 H반 A반 E반	화.목.토 화.목.토 월.수.금 화.목.토 월.수.금 월.수.금 월.수.금 월.수.금 월.수.금	성인 50,600 청소년 45,100 노인 38,500
15:00~15:50		실내축구	화.목	33,000
16:00~16:50		발레	화.목	33,000
17:00~17:50		음악줄넘기	화.목	38,500
17:00~17:50		어린이밸리댄스	월.수.금	초등학생
10:00~10:50		A반	월.수.금	7세~초등생
18:00~18:50		B반	월~금	5세~7세
16:00~16:50	에어로빅	밸리댄스	월.수.금	성인 누구나
16:00~16:50		줌바	월.수.금	노인 38,500
19:00~19:50	댄스 스포츠	초급	화.목	성인 39,600 노인 38,500
20:00~21:30		중급	화.목	성인 누구나
				성인 44,000 노인 39,600

문학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	대상
14:00~14:50	속독논술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비둘	A반	토	30,000	초1~초6
15:00~15:50		B반			
15:10~16:0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	6~초3
15:10~16:00	동화구연		월	25,000	5~7세
15:10~16:00	블록놀이(아이링고)		수	30,000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30,000	유치부
16:10~17:00		B반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제2회 부산지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성료



2018 부산지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관계자 및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 10일(일) 부산진구국민 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9개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으로 열띤 경기를 펼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 북구국민체육센터(부산스포츠클럽)는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하여 수영 1위(9명), 2위(12명), 3위(14명)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부산스포츠클럽)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시민과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대회참가 및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체력100사업 「수영회원 반별 체력왕대회」 개최

북구국민체육센터 수영회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영장 반별 체력왕대회가 개최되었다. 평소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온 수영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체력왕 선발대회는 체력 우수자들의 성취감 고취 및 국민체력100사업의 기반을 강화하여 대표적 체력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민체력100사업 체력측정 참가 신청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http://nfa.kspo.or.kr>)를 이용하거나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 051-362-7008)

2018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수영특강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기간은 7월 24일(화)부터 8월 31일(금)까지로 6주간 총 10개 반 245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주5회, 주3회 수준별 속성 강습으로 진행되며, 전문 수영강사의 지도에 따라 물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발차기, 호흡법, 자유형 등 기초수영을 배우게 되어 평소 운동량이 적은 어린이들에게 체력단련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강에는 수영학습뿐만 아니라 어린이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 051-365-7070)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 성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주2회 주3회 주5회	
		초/중급	
		연수	
		초급	
		중급	
돌고래	08:00~08:50	고급	
		연수	
		초급	
		중급	
		고급	
	09:00~09:50	연수	
		초급	
		중급	
		고급	
		연수	
고급(25명)	10:00~10: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초급	
	11:00~11:50	중/고급	
		연수	
		초급	
		중급	
		고급	
거북이	15:00~15:50	연수(40명)	
		성인조합	
	17:00~17:50	성인조합	
		초급	
	19:00~19:50	중/고급	
		연수	
		초급	
		중급	
		고급	
굿나잇	20:00~20:50	연수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1:00~21: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14:00~14:50	중급	80명
		고급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어린이 수영	12:00~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25명) 중급(30명) 고급(30명) 연수(30명)
	14:00~14:50	어린이종합반	
	17:00~17:50	유아(월, 수, 금)	
	18:00~18: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30명)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일일 자유수영		비회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비회원
	12:00~12: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주말/공휴일 비회원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회원	성인 2,300원	성인 2,3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200원	

스튜디오 운동		25명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타비타(월, 수, 금)	06:00~06:50	성인 50,000원	
타비타(화, 목)	06:00~06:50	성인 40,000원	
요가(월~금)	07:00~07:50	성인 57,000원	
줌바로빅(월, 수, 금)	09:00~09:50	청소년 50,000원	
뮤직필라테스(화, 목)	09:00~09:50	성인 42,000원	
파워로빅(월~금)	10:00~10:50	성인 57,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11:00~11:50	청소년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20:00~20:50	성인 57,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21:00~21:50	청소년 50,000원	

스트레칭 운동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	30,000원
비디 체인자(A)</td				

구·군체육회 소식

● 2/4분기 중구체육회 이사회

중구체육회는 지난 6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양일간 전북 부안 모항해나루호텔에서 '2/4분기 중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중구체육회 이사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사변동사항 보고, 회원단체 입회신청 승인 보고,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중구체육회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가족캠프)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6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양일간 경상남도 산청군 및 함양군 일원에서 11가족(39명) 구성원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유적지 견학 및 가족단위 체육 프로그램(가족단체줄넘기, 농구, 피구, 제기차기 등)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체력증진·가족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2018 서구청장배 송도청소년 스포츠대회 개최



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토) 송도오션파크 및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청소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다. 카약, SUP(패들보드), 비치사커, 인라인롤러, 길거리농구 등 5개 종목에 1,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부대행사로 청소년댄스대회, 물총전쟁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교육, 안전체험 및 공예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정 패밀리데이 개최

서구체육회는 지난 6월 23일(일)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 「다문화가정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11가족(4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워터파크에서의 물놀이로 참가 가족들 모두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 제3회 동구청장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5월 19일(토)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제3회 동구청장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농구대회는 협동심을 기르고 스포츠맨십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경쟁이 아닌 비경쟁 이벤트를 통해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중학부 1위는 소닉붐, 2위는 사하중1, 3위는 신호덩크슛이 차지하였고, 고등부 1위는 모션스포츠1, 2위는 SKY, 3위는 에이젯A 팀이 차지하였다.



● 제14회 영도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5월 13일(일) 동삼테니스 클럽구장에서 영도구테니스협회 참가선수 및 관계자,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영도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클럽의 대표선수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자리가 되었다.



● 제3회 부산진구볼링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5월 13일(일) 성림볼링장에서 「제3회 부산진구볼링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닦아온 기량을 발휘하여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대회결과 1위는 김수태 선수, 2위는 박철오 선수, 3위는 강수연 선수가 차지하였다. 여자 최우수선수로는(H/G) 김용주 선수, 남자 최우수선수로는(H/G) 심영민 선수가 선정되었다.



제4회 부산진구족구협회장기 대회

지난 5월 27일(일) 연지초등학교에서 「제4회 부산진구족구협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12팀 100여 명이 참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회원 대다수가 참가하여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대회결과 종합 1위는 부산진족구단, 2위는 연지족구단, 개성족구단, 3위는 스텔스족구단이 수상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 제56회 부산웰빙걷기대회 개최

지난 5월 19일(토) 충렬사에서 100여 명의 걷기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6회 부산웰빙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일상운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걷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주민들과 함께 신체활동 증진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시민참가형 통합건강증진 네트워크 확산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2018 동래구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6월 3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4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 동래구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테니스동호인의 유대감을 높이고 친선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대회결과 금배조 우승은 반도클럽, 은배조 우승은 하우회, 동배(A)조 우승은 금화(청)클럽, 동배(B)조 우승은 쌍용예기클럽이 차지하였다.



●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5월 3일(목) 누리아라부페에서 남구체육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대의원, 직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종체육대회 개최결과 및 생활체육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이 보고되었으며, 남구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구빙상장 준공식

지난 5월 10일(목) 용호동 백운포체육공원에서 실내빙상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덕천동 북구문화빙상센터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부산 남구 실내빙상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과 시비 30억 원, 구비 30억 원 등 110억 원이 투입돼 지상2층 (높이 11m, 연면적 4222㎡)에 국제규격 아이스링크 1면, 200석 규모의 관람석, 기계실, 휴게실 등을 갖추어 완공되었다. 이번 실내빙상장 완공을 계기로 백운포 일원은 기존의 체육공원, 남구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영남권 최고의 도심지 내 동·하계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군체육회 소식

● 파크골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5월 9일(수)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 경기장에서 1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2018파크골프 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은 구포클럽 이종택 선수, 준우승은 햇살클럽 정길상 선수가 차지하였고, 여자부 우승은 구포클럽 김기자 선수, 준우승은 부부클럽 홍옥희 선수가 수상했다.

북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난 5월 11일(금) 화명생태공원 그라운드골프 경기장에서 33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북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단체전 1위는 남구(244타), 2위는 금단(249타), 3위는 사하구(250타) 팀이 차지하였고, 개인전 1위는 해운대 박연명 선수(30타), 2위는 금샘 박금락 선수(34타), 3위는 영도 안병선 선수(35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4회 북구 무에타이 협회장배대회

지난 5월 27일(일) 덕천 태한운동센터에서 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북구 무에타이 협회장배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결과 우승은 만덕클럽 무에타이 훌릭 팀, 준우승은 덕천화명 무. 타. 봇 팀이 각각 수상하였고 최우수선수로(MVP)는 무. 타. 봇 팀의 윤우조 선수가 선정되었다.



제31회 북구 협회장배 탁구대회

지난 6월 15일(금) 강서실내체육관에서 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31회 북구 협회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1위는 월드클럽, 2위는 백양클럽, 3위는 송유일 클럽이 차지하였다.



● 제22회 해운대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해운대구체육회가 후원하고 해운대구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2회 해운대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지난 6월 3일(일) 장산배수지 테니스장 외 보조코트에서 60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되새기고 각 클럽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기결과 금배조 우승은 벽산 2차클럽, 은배조 우승은 삼호가든클럽, 동배조 우승은 센텀파크클럽, 한우리클럽이 각각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 제3회 사하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지난 5월 4일(금)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동호인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사하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남자부 1위는 상록클럽 전재구 선수, 2위는 강변클럽 최승환 선수, 3위는 한마음클럽 김찬용 선수가 수상했고, 여성부 1위는 에덴클럽 이경순 선수, 2위는 에덴클럽 백영옥 선수, 3위는 버디클럽의 안연옥 선수가 차지하였다.

제3회 사하구체육회 클럽대항테니스대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5월 19일(토) 을숙도테니스장에서 「제3회 사하구체육회 클럽대항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동호인 800명을 포함한 내빈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대회결과 금배조 우승은 베스트클럽, 준우승은 성원클럽, 은배조 우승은 다산클럽, 준우승은 다대클럽, 동배조 우승은 베스트클럽, 준우승은 삼환클럽이 차지하였으며, 장려상은 옥녀클럽과 월성클럽에게 돌아갔다.



제3회 사하구축구왕중왕전

지난 5월 20일(일) 을숙도 인조잔디구장에서 「제3회 사하구축구왕중왕전」이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동호인 800여 명을 포함하여 부산시축구협회장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대회결과 1위는 부민FC, 2위는 사동FC, 3위는 에덴FC가 수상하였다.



제12회 사하구협회장기 탁구대회

지난 6월 6일(수) 「제12회 사하구협회장기 탁구대회」가 강서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400명의 동호인들을 포함한 많은 내빈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참가 동호인들에게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대회결과 A부 4강 공동우승은 제네시스, 티타임A, 횃팅클럽, 진영주가 차지하였으며, B부 4강 공동우승은 동아파밀리A, 다대온천A, 혜성A, 클러버가 수상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 금정어린이병원장배 겸 제2회 금정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대회 개최

금정구배드민턴협회와 금정어린이병원은 지난 6월 3일(일) 금정구민체육관에서 「금정어린이병원장배 겸 제2회 금정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뽐내었고 승패를 떠나 클럽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 하였다.



대회결과, 여자 복식 40대에서 A조 1위는 금정클럽 강미경·염향숙 선수, B조 1위는 금샘클럽 정사미 선수·도시철도클럽 신미애 선수, C조 1위는 현곡클럽 유수미·소성옥 선수, D조 1위는 장전클럽 김진미 선수·금사클럽 김성애 선수가 차지하였다. 여자 복식 50대에서 A조 1위는 도시철도클럽 이경옥·하춘금 선수, B조 1위는 청수클럽 조영희·전인란 선수, C조 1위는 금사클럽 이선아·최상임 선수, D조 1위는 현곡클럽 염미선·김미숙 선수가 수상하였다. 여자복식 60대에서 A조 1위는 금샘클럽 하경명·김봉식 선수가 차지했으며, 혼합복식 40대에서 A조 1위는 금샘클럽 권혁산·정순자 선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2018 한국수력원자력사장배 전국축구대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대한축구회는 지난 6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양일간 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2018 한국수력원자력사장배 전국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금정구축구협회 소속 남산축구회는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위는 넥센타이어, 2위는 덴소코리아, 공동 3위는 예수병원이 차지하였다. 실업팀들 사이에서 남산축구회는 입상 팀 중 유일한 동호인 팀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금정구축구협회의 발전과 각 클럽의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선수상에는 남산축구회 김승원 선수가 선정되었다.



제21주년 장전제일축구회 창립기념 축구대회 개최

지난 6월 10일(일) 선동천연잔디구장에서 「제21주년 장전제일축구회 창립기념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많은 내·외빈들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회는 금정구축구협회에 소속된 7개 클럽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승은 구서축구회, 준우승은 금사축구회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선수상은 정상민(구서) 선수, 우수선수상은 송성용(금사) 선수가 선정되었다.



제22회 금정구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대회 개최

지난 6월 17일(일) 스포원테니스광장에서 「제22회 금정구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승패를 떠나 클럽 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대회였다. 대회결과 금배조 우승은 금천클럽, 준우승은 러브클럽, 은배조 우승은 비아B클럽, 준우승은 금천클럽, 동배조 우승은 장전금샘클럽, 준우승은 두일클럽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11회 강서구 체육회장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4월 29일(일) 명지 다목적 오션 인조잔디구장에서 「제11회 강서구 체육회장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200여 명의 종목별선수단 및 임원이 자리하였으며 총 12종목의 경기가 치러져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비트로배 겸 제15회 강서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5월 6일(일) 강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비트로배 겸 제15회 강서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회원들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강서구배드민턴협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제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골프협회장배대회 개최

지난 5월 30일(수) 아라미르CC에서 강서구골프협회 20개 클럽의 260명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골프협회장배대회」가 개최되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많은 동호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8 부산광역시 강서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6월 24일(일) 「2018 부산광역시 강서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명지75호광장 테니스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동호인들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실천하는 의미로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20회 연제구축구협회 장년배축구대회 개최

연제구축구협회는 지난 5월 20일(일) 연제구 부산환경공단에서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하여 「제20회 연제구축구협회 장년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 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3회 연제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6월 24일(일)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약 6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23회 연제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종합 1위는 혜성체육관, 종합 2위는 백호체육관, 종합 3위는 포스코승재체육관이 수상하였다.

2018년 연제구체육회 제2차 이사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5월 25일(금) 토곡식육식당에서 「2018년 연제구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 및 하반기 사업 진행, 구청장기대회를 비롯하여 협회장기대회와 시장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 관한 공지사항을 설명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수영구체육회



2018 제7회 수영구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지난 5월 20일(일) 수영중학교 체육관에서 「2018 제7회 수영구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수영구 국회의원, 구청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였으며 우수한 동호인에게 표창패와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대회는 승패를 떠나 클럽 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대회였다.

2018 수영구체육회 5월 이사회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목) 홍도횟집에서 수영구체육회장, 친목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직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수영구체육회 5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결과 및 인정단체 승인여부, 구정 소식, 공지사항 등의 보고가 있었으며 수영구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2018 수영구체육회 6월 이사회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6월 21일(목) 아쿠아펠리스에서 수영구체육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수영구체육회 6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고문위촉장 수여, 추진사항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2018 수영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지난 6월 17일(일) 광안4동 체육공원에서 「광안4동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개장식 기념 2018 수영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수영구 게이트볼 동호인 50여 명이 참가하여 선구클럽의 선구1조가 우승했고, 수미클럽의 수미2조가 준우승, 실버1조, 선구2조가 공동 3위에 올랐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상구체육회

2018 사상구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난 5월 20일(일)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 C, D구장에서 「2018 사상구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은 3개 클럽 총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오갔다. 평소 동호인 간의 활발한 교류로 이론적 지식과 실전 기술을 함께 나누며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었다. 남자부 1위는 백송클럽 소속의 강도성 선수, 여자부 1위는 백송클럽 소속의 조미옥 선수가 차지했다. 그리고 남자부 2위는 사상클럽 최순홍 선수가, 뒤이어 여자부 2위도 사상클럽 김영숙 선수가 차지했으며, 남자부 3위는 정옥채 선수, 여자부 3위는 사상클럽의 송남순 선수가 수상하였다.



2018 제5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6월 21일(목) 삼락생태공원에서 「2018 제5회 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65명, 파크골프 44명, 그라운드골프 40명 등 총 149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게이트볼 종목에서 주례2조가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1위를 수상하였다. 2위는 삼락2조, 그리고 주례1조와 백양클럽이 공동 3위에 올랐다. 파크골프 종목에서 단체전 1위는 조명식, 2위는 김철세, 3위는 서기제 팀이 차지했으며, 개인전은 오정자 선수와 김철세 선수가 우승을 거두었다. 그라운드골프 종목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괘법클럽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단체전 2위는 감전클럽, 3위는 모라클럽이 수상하였다.



2018 사상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난 6월 23일(토)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사상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는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품새, 겨루기가 풀리그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룬 끝에 품새와 겨루기에서 신주례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품새 준우승은 쌍용백마, 겨루기 준우승은 학장백마 팀에게 돌아갔다. 품새 3위는 모라한겨레, 겨루기 3위는 창진 팀이 차지했다.



2018 사상구청장기 테니스·축구·게이트볼·족구·야구대회

사상구체육회는 6월 24일(일) 삼락생태공원에서 「2018 사상구청장기 테니스·축구·게이트볼·족구·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테니스종목은 15개 클럽 270명, 축구종목은 8팀 349명, 게이트볼종목은 6팀 51명, 족구종목은 11클럽 201명, 야구종목은 12팀 120명으로 총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었던 이번 대회는 동호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18회 초·중·고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지난 5월 19일(토) 기장체육관에서 「제18회 초·중·고 어머니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어머니 배구대회는 여성의 생활체육 참가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기장군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기장군 관내 어머니 및 학교 교사들을 비롯하여 약 400명 14개 팀이 참가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구군연락처

구·군	주 소	전화번호	Fax
종구	종구 광복로 55번길 10	463 - 7330	462 - 7803
서구	서구 망양로 57 구덕운동장 내 23호	248 - 7330	231 - 7330
동구	동구 수정공원로 63-1 수정산 가족체육공원관리동	903 - 7330	904 - 7330
영도구	영도구 해양로 307 마린구장 내	419 - 4853	413 - 6008
부산진구	부산진구 성지로 143번길 27 초연근린공원 생태체험센터	804 - 9898	804 - 9867
동래구	동래구 미남로 110 동래구국민체육센터	553 - 7330	558 - 5842
남구	남구 백운포로 108(용호로)	644 - 7330	632 - 4306
북구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북구청	334 - 7330	309 - 4710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재송동,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704 - 5010	704 - 5998
사하구	사하구 하신번영로 119(신평스포츠공원)	205 - 2007	205 - 7264
금정구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4층	519 - 4981	519 - 4982
강서구	강서구 낙동북로 477번길 강서구청 별관211호	972 - 7003	973 - 2468
연제구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청 지하1층 연제구체육회	868 - 7330	864 - 5155
수영구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지하1층 수영구체육회	610 - 4790	628 - 9843
사상구	사상구 학감대로 242, 8층 사상구체육회 (김전동)	314 - 7330	322 - 7330
기장군	기장군 일광면 체육공원 1로 71-15 기장군체육회	709 - 4897	728 - 6063

스포츠클럽 소식



동래스포츠클럽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실시

동래스포츠클럽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수영(6개) 및 생활체조(1개) 프로그램 등 총 7개 프로그램 1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일 양일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선용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소수정예 수업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돌고래 선수단 제4회 한국스포츠

컨설팅 회장배 대회 참가

지난 5월 20일(일) 동의과학대학교 수영장에서 열린 한국스포츠 컨설팅 회장배 대회에 23명의 초등부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걷기협회

제58회 웨빙걷기대회 성료

부산광역시 걷기협회가 주최하고 동래구 걷기협회가 주관하는 제58회 웨빙걷기대회가 지난 5월 19일(토) 충렬사 입구에서 부산시민 185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걷기 코스는 충렬사 입구 → 동장대 → 인생문 → 3·1운동 기념탑 → 북장대 → 백세계단 → 박물관 고분길 → 장영실 과학동산 → 북문 → 서장대 → 편백숲길 → 소나무숲길(점심) →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 → 명륜역을 지나는 코스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농구협회

부산광역시 종별농구선수권대회 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차 예선대회 개최



지난 6월 20일(수) 제56회 부산광역시 종별농구선수권대회 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차 예선대회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차에 이어 2차 예선대회에서 우승한 부산중앙고등학교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농구종목 남고부 참가팀으로 선발되었다.

궁도협회

부산궁도협회장 취임식 및 부산대회 성황

제16대 부산궁도협회장 취임식 및 제24회 부산광역시 협회장기 궁도대회가 지난 5월 26일(일) 부산 사직정에서 부산궁도협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정순경기를 개사하여 부산시내에 있는 네 곳의 활터에서 진행되었다.

제16대 부산궁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신임 김치옥 회장은 “가장 신사적인 운동이라는 골프를 오랫동안 했는데 골프와 궁도가 유사한 면이 많은 고급스런 운동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더 많은 부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부산 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볼링협회

제23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에서 남자 중학부 종합우승 쾌거



대구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에 참가해 남자 중학부 종합준우승을 이루는 쾌거를 거뒀다. 볼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선수들을 더욱 다듬어 오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상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강화훈련과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결과

개인전(남자중학부)

- 우승 : 반안중학교 강성민(3학년)
- 준우승 : 거성중학교 조민규(3학년)

4인조전(남자중학부)

- 준우승 : 반안중학교(최은도, 여민혁, 이동건, 강성민)

개인종합(남자중학부)

- 우승 : 거성중학교 조민규(3학년)
- 종합우승 : 반안중학교 남자중등부

회원종목단체 소식

육상연맹

2018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개최



2018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지난 5월 18일(금) 용두산공원 특설경기장에서 국제U20대회를 필두로 19일 오전 10시에는 국제여자, 오후 2시에는 국제남자대회로 이틀간 개최되었다. 2009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였다. 미국, 스페인, 브라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장대높이뛰기 강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강자 중국, 일본 등 15개국 40여 명의 국내외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치러졌다.

조정협회

“조정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제1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조정대회 개최



부산시조정협회는 지난 5월 10일(목)부터 6월 3일(일)까지 수영강에서 제1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조정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해군사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하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등 대학부와 전국에서 모인 일반 동호인클럽이 참가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학부와 일반부의 종합우승은 울산과학기술원이 차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제8회 부산-후쿠오카 조정친선교류전 개최



부산시조정협회는 지난 6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양일간 수영강에서 제8회 부산-후쿠오카 조정친선교류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후쿠오카조정협회 소속팀 27명과 부산광역시 조정협회 소속 클럽 팀이 참가하였다.

이날 대회를 통해 두 도시(부산-후쿠오카)가 화합과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줄넘기협회

제14회 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클럽대항 줄넘기대회 선전

지난 5월 27일(일) 전국의 클럽들이 모여 줄넘기 대회를 통하여 기량을 확인하는 제14회 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클럽대항 줄넘기 대회가 제주 한라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및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경기결과 : 종합 3위

단체전 – 창작음악줄넘기 3위, 긴줄손 가위바위보 1위, 3위
개인전 – 각 종목별 입상
30초 빨리뛰기 대상 : 초등부
스피드 이중뛰기 대상 : 초등부
2인 맞서서뛰기 대상 : 초등부, 일반부
2인 번갈아뛰기 대상 : 초등부, 일반부



제10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줄넘기대회

제10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줄넘기대회가 지난 6월 6일(수) 부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약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No	회원종목단체	회장	전무·국장	사무국	연락처	팩스	등급
1	검도회	안영학	서상진(전무)	이아라	503-3569	501-0031	
2	게이트볼협회	정오암	김정웅(국장)	김정웅	552-8980	552-8981	
3	골프협회	황 이	김종규(전무)	공석	500-7954	501-7954	
4	국학기공협회	김명규	서재활(국장)	서재활	582-7729	582-4752	
5	궁도협회	김치옥	장오현(전무)	장오현	506-2716	503-7107	
6	그라운드골프협회	조정래	이유석(국장)	이유석	552-4953	333-3169	
7	근대5종연맹	김영일	김종건(전무)	조민호	500-7952	050-4926-0088	
8	낚시협회	황구연	김성민(국장)	김성민	242-9670	242-9679	
9	농구협회	임준택	이지영(국장)	이지영	500-7958	505-7557	
10	당구연맹	이정윤	한봉희(전무)	한봉희	715-8200	715-8201	
11	댄스스포츠연맹	박유하	차은정(국장)	차정은	466-8225	466-8227	
12	럭비협회	오령근	신선곤(전무)	김이경	-	303-7377	
13	레슬링협회	오정룡	허성준(전무)	김 악	504-8811	504-4966	
14	롤러스포츠연맹	김태형	우기석(전무)	우기석	500-7962	502-1172	
15	바둑협회	이철승	김영순(전무)	김화림	462-0947	469-8863	
16	배구협회	권영중	김상수(전무)	김상수	400-3092	400-3099	
17	배드민턴협회	윤명옥	오근택(국장)	김정민	503-5644	503-0632	
18	보디빌딩협회	이호열	문서윤(국장)	문서윤	500-7966	050-4189-3248	
19	복싱협회	조수연	김 유(전무)	김 유	500-7968	809-0339	
20	볼링협회	조성두	홍용찬(전무)	이정희	500-7970	532-7900	
21	빙상경기연맹	김경자	김영훈(전무)	김영훈	500-7984	333-5495	
22	사격연맹	최영국	서성동(전무)	서성동	404-4758	404-0187	
23	산악연맹	김경섭	김정숙(전무)	강소라	506-2586	505-2586	
24	요트연맹	한창훈	이광육(국장)	강문지	747-1765	746-1793	
25	세팍타크로협회	최용태	최영완(전무)	고문석	501-3201	754-3201	
26	수상스키웨이브보드협회	김인대	오정숙(국장)	오정숙	500-7981	802-8868	
27	수영연맹	정연승	윤미연(전무)	김미정	503-8494	506-0667	
28	수중·핀수영협회	박재익	박현주(국장)	박현주	746-0528	743-0528	
29	스쿼시연맹	백종모	전영준(전무)	전영준	257-8449	257-8450	
30	스키협회	김태순	윤설호(전무)	윤설호	500-7979	0505-442-3000	
31	승마협회	이종석	배찬문(전무)	배찬문	403-8119	405-8318	
32	씨름연맹	최현돌	임구슬(국장)	임구슬	244-1620	244-1619	
33	아이스하키협회	조무성	김동업(전무)	김동업	742-8600	761-1818	
34	야구소프트볼협회	양준호	함현용(국장)	박은실	255-1842	255-2697	
35	에어로빅협회	강세주	최인영(국장)	최인영	701-9544	701-9545	
36	양궁협회	이승락	강현종(국장)	강현종	941-3552	941-3551	
37	역도연맹	조동준	서문희(전무)	서성만	242-8500	622-3731	
38	우수연맹	박숙자	김부일(부회장)	김부일	500-7987	321-1334	
39	유도회	서정우	김기범(전무)	강시생	505-7444	505-7445	
40	육상연맹	빈대인	박이현(전무)	조은정	253-3543	242-3375	
41	자전거연맹	김은우	박경기(전무)	엄영섭	550-1886	550-1885	
42	정구협회	박용수	신한철(전무)	신한철	505-9088	505-9088	
43	조정협회	우예종	김준모(국장)	김준모	973-2017	973-0747	
44	족구협회	이동석	하종진(국장)	하종진	590-1179	590-0299	
45	줄넘기협회	이미애	최 명(국장)	최 명	503-3375	503-3379	
46	철인3종협회	김명진	박찬호(국장)	박찬호	500-7990	506-7991	
47	체조협회	최경훈	오종환(전무)	김정대	503-7514	505-7863	
48	축구협회	정정복	김기수(전무)	우서정	505-8195	505-8809	
49	카누연맹	송순임	유원대(전무)	신봉규	941-1556	941-1558	
50	컬링협회	신성욱	이규현(전무)	이규현	-	711-7344	
51	탁구협회	양재생	안경철(국장)	안경철	501-7982	501-7983	
52	태권도협회	김상진	김동규(국장)	김정은	504-1312	504-1396	
53	택견회	최용혁	이종윤(국장)	이종윤	203-4568	202-2771	
54	테니스협회	김영철	박소영(국장)	박소영	504-2228	505-5595	
55	파크골프	김성호	유경곤(국장)	유경곤	070-8108-7330	852-4076	
56	펜싱협회	조성제	이정현(전무)	성상욱	711-1262	711-1265	
57	하키협회	김성식	최은택(전무)	이재열	-	802-4778	
58	핸드볼협회	이군태	박창기(국장)	박창기	500-7982	501-1793	
59	국무도연맹	우홍열	윤용식(국장)	윤용식	633-3319	759-0175	
60	바이애슬론연맹	안양욱	서정륜(국장)	서정륜	500-7979	0505-310-1682	
61	요가회	홍승화	성지정(국장)	성지정	253-3543	242-3375	
62	카바디협회	황 준	김종국(전무)	김종국	-	-	
63	킥복싱협회	박성현	김현우(전무)	김현우	627-7771	627-7719	
64	페러글라이딩협회	최경석	엄호섭(국장)	엄호섭	515-6870	513-5052	
65	합기도중앙협회	김병희	조활남(국장)	조활남	532-8887	-	
66	검기협회	신종달	안하나(국장)	안하나	320-1833	320-2618	
67	주짓수협회	안철민	김재억(전무)	김민우	-	0504-480-8488	
68	치어리динг협회	최인용	이우종(국장)	이우종	-	-	
69	피구 협회	황경현	최은남(국장)	최은남	070-7335-7853	980-0678	
70	플라잉디스크연맹	문수민	박성곤(국장)	박성곤	292-7769	201-0228	
71	공수도연맹	진성현	박주현(국장)	박주현	744-8890	555-5302	
72	서핑협회	이수판	김지현(국장)	김지현	070-4121-2222	-	
73	에어로 킥협회	김영진	박성철(국장)	박성철	070-7533-9528	0504-004-3703	



회원종목단체 현황

NEWS PANORAMA

전국 5개 권역별(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신설
6월 26일 경상권 지역센터 개설(부산양정센텀빌딩 2층)



대한체육회는 2018년 전국 5개 권역별(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신규 개설을 통한 은퇴선수 진로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규 개설되는 권역별 센터를 대표하여 6월 26일 경상지역센터(부산양정센텀빌딩 2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13년부터 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지역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원스톱 진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가 서울에만 위치하여 지방 거주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전국 5개 지역별 권역별 센터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선수도 편하게 오프라인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는 은퇴선수 및 현역 운동선수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은퇴선수는 취업·경력 관련 상담 또는 취업지원 서비스, 멘토링, 은퇴선수 잡매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역 운동선수도 센터 방문 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운동에 전념해온 은퇴선수들이 새로운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 기술을 향상하여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춘 1:1 진로·취업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취업 성공 선배 멘토링, 취업 교육, 창업 교육,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준비과정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sport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PANORAMA

2

생활체육 '스포츠7330' UCC·사진 공모전 개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체육 '스포츠7330' UCC·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체육활동 참가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4일까지이다. 공모 주제는 「운동은 우리들의 친구! 스포츠7330!」이며 「UCC'와 '사진'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스포츠7330'은 「일주일에 세 번,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생활체육 캠페인이다. 공모 내용은 생활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가족, 친구와 함께

께 쉽고 재미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일반부」와 「어린이·청소년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대한체육회는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주제 표현성, 참신성, 예술성(완성도), 보도성 등이다.

수상인원은 「일반부」 23명, 「어린이·청소년부」 23명으로 총 46명이다.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함께 분야별 대상 2명(UCC 200만원, 사진 100만원), 금상 2명(UCC 100만원, 사진 50만원), 은상 4명(UCC 2명 각 50만원, 사진 2명 각 25만원) 등 총 상금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동상 15명(UCC 5명, 사진 10명)과 「어린이·청소년부」 입상자 23명 전원에게는 대한체육회 회장상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작품 규격, 유의사항 등 기타 작품 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공모전 온라인 접수페이지(www.sports7330.kr)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출처 : 대한체육회



스포츠7330봉사단 5기 발대식 및 교육 시행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7330봉사단 5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참가대상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대학생 및 동호인 자원봉사단 200명이며, 봉사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돋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번 발대식 및 교육에서는 지난 봉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신규 봉사단에게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봉사활동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소양교육, 스포츠 안전교육, 향후 봉사계획 수립 및 실습 등도 실시해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단의 역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적으로 스포츠7330봉사단을 배치하여 대학생·생활체육동호인·은퇴선수들이 체육재능나눔,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 체육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 대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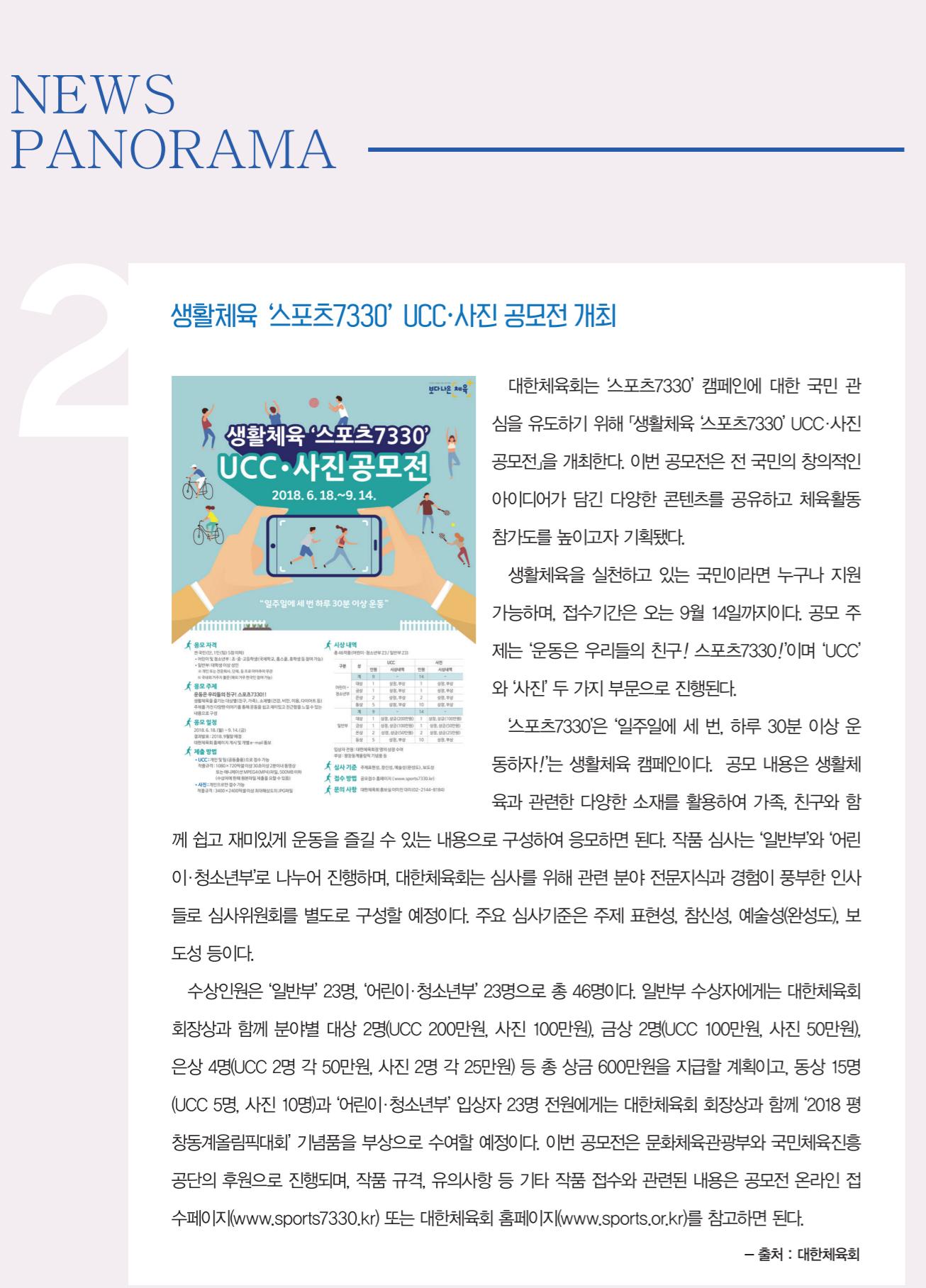
'2018년 소통하는 체육단체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2박 3일 간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덕산에서 「2018년 소통하는 체육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체육회 회원중목단체 200여 명, 시·도체육회 7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한국체육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체육단체가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체육인, 신뢰 받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도핑방지 및 보험 안내, 공공스포츠클럽 설명,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공익법인회계 기준과 결산 유의 사항, 국가대표 강화훈련 설명,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설명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국가체육의 균형적 발전, 스포츠코리아의 도약, 자율과 혁신으로 행복한 체육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5대 과제를 골자로 한 이기흥 회장의 특별 강의가 이루어졌다.

-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PANORAMA

1920년 출범 대한체육회, 창립 98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창립 98주년(7월 13일)을 맞이하여 7월 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대한체육회 창립 98주년 기념식에는 국회 김병욱 위원, 김정행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김성조 대한체육회 부회장, 유승민 IOC 위원 등을 비롯하여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

육회 부회장 등 체육인 약 4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격 국가대표 진종오, 양궁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총렬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박종길 전 선수총장의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 낭독에 이어, 이기홍 회장의 기념사와 김병욱 국회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체육 선구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유공자 1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대한체육회 모범직원 10명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정년퇴직자 10명에게 각각 표창장과 재직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작 2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선정된 슬로건은 추후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체육회장은 기념사에서 “체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선배 체육인을 비롯한 체육 가족 여러분과 정부의 지원,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 모두의 성원이 있었기에 스포츠 강국의 위상 정립이 가능했고,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출처 : 대한체육회

5

2018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며, 현재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3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공모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체육 관련 단체, 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음으로 공모에 있어 필수 매칭 비용인 지방비 10%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정 후 2년차부터 지방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생활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을 위해 시·군·구 기준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2개 이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 전 권역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사전 설명회가 4차례 진행되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공모 접수를 통해 3차례(서류·발표·현장)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7월에 최종 선정된 클럽을 발표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국정과제 72번)’를 만들기 위한 체육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지역시설을 기반으로 종목별 참가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은퇴선수가 전문지도자로 참가하여 참가자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기량이 뛰어난 참가자는 우수선수로 육성하는 등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대한체육회

6



여름철 식중독,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해요



식중독에도 종류가 있다

식중독은 크게 자연독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세균성(감염성) 식중독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독 식중독은 체내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를 가지고 있는 동식물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복어알과 내장, 모시조개, 섭조개, 독버섯 등을 먹고 많이 발생한다. 구토, 설사, 경련, 마비 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때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화학성 식중독은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등의 화학 물질에 의한 것으로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며 복통, 구토, 전신쇠약, 신경장애 등을 일으킨다. 세균성 식중독은 말 그대로 상한 음식 등에 있는 박테리아균을 먹고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흔히 여름철 뉴스에 나오는 식중독은 주로 세균성 식중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들로는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O-157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위와 같은 원인들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설사를 할 때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통 및 심한 구토증과 열이 동반될 때 대변에 혈액이나 점액이 묻어나올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설사 양이 적어도 증상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설사가 날 때는 우유, 유제품, 요구르트, 신 과일, 과일 주스, 익하지 않은 음식, 찬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커피 등을 피하고 미음이나 쌀죽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등 주로 소화되기 쉬운 것으로 먹고, 반찬은 담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해주어야 하는데 끓인 보리차 물 1리터에 설탕 2티스푼, 소금 1/2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전해질 보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설사가 계속되거나 복통이 지속될 시에는 항생제나 수액요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 좋다.

식중독은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손 씻기 : 손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자.
- 익혀먹기 :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4°C를 넘도록 하고,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자.
-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자.

이외에도 나들이, 학교현장 체험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 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해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별도의 칼, 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 적당량을 준비하고 남기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찌개나 국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끓여 놓아야 한다.

참고자료
(식중독 종류)

살모넬라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상한 우유,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먹고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개, 고양이, 녹색거북이 등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 설사, 구토, 발열,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때에는 변에 피나 점액이 묻어나올 수도 있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크림, 샐러드, 햄 등을 먹고 많이 발생하며, 주로 설사만 일으키고 대부분은 하루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회 등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고 발생하며 복통, 발열, 설사를 일으키지만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혀서 먹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선을 회로 먹는 경우에는 가열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즉시 5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O-157균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햄버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우유를 먹고 발생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걸린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설사 뿐만 아니라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주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스포츠의 제왕, 축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 축구.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 단연 축구만한 스포츠가 없다. 축구공 하나와 넓은 공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스포츠. 공 하나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스토리에 우리는 울고 웃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축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 축구.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 단연 축구만한 스포츠가 없다.

”

축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그렇기에 다른 스포츠에 비해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 예전부터 공을 차는 경기는 어디에나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헌에 의하면 서양문명의 발생지라는 고대 로마에서 ‘하파스톤’이라는 경기를 즐거했다고 한다. 머리털을 가득 채운 가죽 볼을 던지고 차고 하는 간단한 형식이 곧 축구의 시초라는 것.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황제시대에 궁중 안에서 ‘축국’이라고 발로 차는 운동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유력한 설은 11세기(1042년) 덴마크인에 의해 정복당했던 영국이 덴마크의 압제를 벗어나자 복수하는 뜻에서 덴마크 병사들의 신체가 전쟁터에 텅굴고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분노에 차 그들의 두골을 차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축구의 유래라고 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축구가 현재와 같은 스포츠로서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180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영국에서의 풋볼은 무질서한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각 그룹들은 통일된 경기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3년 풋볼 그룹의 대표자들은 런던에 모여 규칙을 통일하고 공인된 규약과 경기규칙을 인쇄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협회가 인정하는 경기규칙에 의한 축구가 생겨났으며, 이것이 ‘어소시에이션 풋볼’의 탄생이다. 영국에서 조직화되고 발전한 축구는 영국에 유학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고국에 보급되거나, 영국인 목사·선교사·군인·상인들에 의해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보급되었다. 그 후 세계적인 열광 속에 1904년 국제관리기구로서 국제축구연맹(FIFA)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축구가 들어왔을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세기 말이다. 오늘날의 축구와는 조금 달랐겠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면 옛날 신라시대에도 ‘축국’이란 놀이 형태의 공차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영국을 모태로 하는 근대 축구가 전파된 것은 1882년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호스의 승무원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축구의 보급은 1904년 서울의 관립 외국어 학교에서 체육 과목의 하나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06년 서울 삼성평에서 한국 최초의 축구 경기가 열렸고, 국제 규칙 하에서 각종 장비를 갖추고 경기한 것은 1920년대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8년 9월 4일에 대한축구협회가 새롭게 출범했고, 그해 FIFA에 가입, 1954년 아시아축구연맹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초보 야구팬을 위한 Tip

밤의 경기장 - G. 그라스 2002 한일월드컵 축하시, 1960년 작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off-side), 정확히 아십니까?

권터 그라스는 우리에게 《양철북》으로 알려진 소설가다. 이 네 줄의 시는 짧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모두들 용광로 같은 축제에 빠져 있을 때, 고독하게 골대까지 전진한 시인. 그러나 그는 반칙을 범했다. 오프사이드인 것이다. 두 명의 수비수보다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침탈한 죄. 축제는 끝나고 남은 것은 고독한 시인이다.

축구 경기 중 가장 김빠지게 만드는 장면, 바로 '오프사이드'라고 외치는 순간일 것이다. 오프사이드가 대체 뭐길래 그러는 걸까. 오프사이드는 공격팀 선수가 상대편 진영에서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 자기와 골라인과의 중간에 상대팀 선수가 2명 이상 없으면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으며, 이때 후방의 자기편으로부터 패스를 받으면 반칙이 되는 걸 말한다.

만약 축구에 오프사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마도 골문 앞에서 득점을 노리는 다수의 공격수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다수의 수비수들로 인해 골문 근방은 아비규환을 연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프사이드는, 축구를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축구를 더욱 재미있고 축구답게 하는 규칙이다.

규모다.

필드에는 각종 육상경기를 치를 수 있는 트랙과 국제규격의 잔디 축구장을 남북으로 배치하고 있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은 부산아이파크의 이전 홈구장이기도 하다. 월드컵 종료 후에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및 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포츠 관련 전문매장과 집단화된 업무 시설을 유치하며, 각종 홍보행사 및 이벤트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온 가족이 즐기는 스포원파크 축구장



스포원파크는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건설된 경기장이다. 이곳에서 농구와 테니스, 사이클 경기가 열렸는데, 대회 종료 후에는 부산시민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기존의 경기장과는 달리 '공원'과 '개방'의 개념을 도입한 '공원형 경기장'이다. 특히, 이곳의 인조잔디 축구장은 축구대회나 운동회 장소로 인기가 높다. 휴일의 경우 신청이 쇄도해 이용하라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축구 어디서 해? 여기로 가자



부산아이파크의 홈구장, 구덕운동장 축구장

부산아이파크의 홈구장인 구덕운동장 축구장. 이곳은 1985년 사직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유일한 시민종합 운동장이었다. 야구장 육상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88올림픽 보조경기장, '97동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지금은 비록 그 중심이 사직운동장으로 옮겨져 갔으나, 지금도 축구 경기 등 중요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서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부산 스포츠의 심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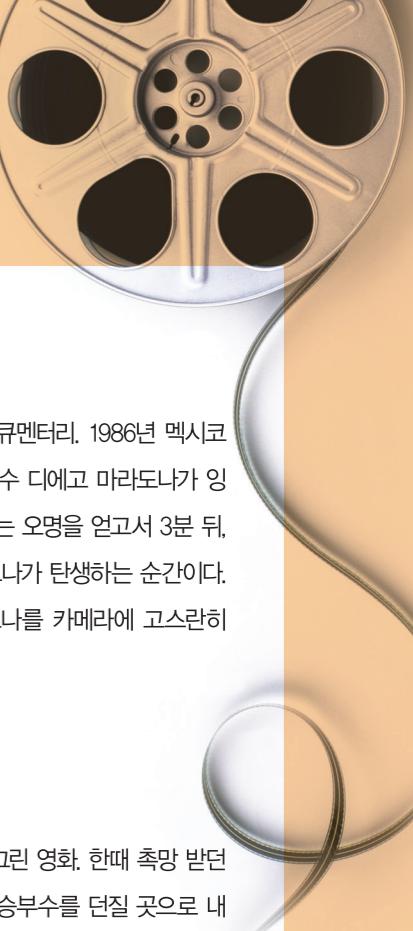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으로 2001년 개장되었다.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주경기장은 부지면적 33만 578m², 연건평 9만 2638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만약 축구에 오프사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면 아마도 골문 앞에서 득점을 노리는 다수의 공격수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다수의 수비수들로 인해 골문 근방은 아비규환을 연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프사이드는, 축구를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축구를 더욱 재미있고 축구답게 하는 규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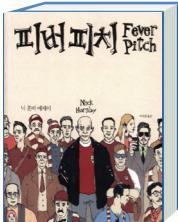
”



MOVIE



손꼽아 기다렸던 4년! 그러나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16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는 노릇. 태극전사들은 집념과 투지를 바탕으로 우리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다. 보란 듯이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대0으로 제압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유쾌한 대반란에 우리나라를 물론 전 세계가 환호했는데, 그래서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밤잠 설치며 응원한 월드컵대회, 아직 그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월드컵대회보다 더 흥미진진한 책과 영화로 이번 월드컵대회의 아쉬움을 달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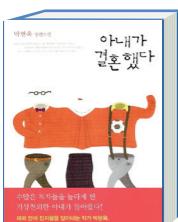


피버 피치 닉 혼비

프로야구 원년의 해인 1982년. 그때 거기 도무지 뛸 해도 하나도 안 풀리는, 그런 팀이 있었다. 바로 인천 연고의 삼미 슈퍼스타즈. 팀 로고를 가득 채운 큰 별만큼이나 꿈은 원대했다. 감독도 선뜻 “우리 팀에는 슈퍼스타밖에 없다”며 장담했단다. 그러나 현실은 곧잘 희망을 배반하는 법.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패배가 이어지는 불운의 팀. 야구경기 못지않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삼미 슈퍼스타’들이 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열광하는, 냉정한 승부가 지배하는 전쟁터. 그러나 1등보다 많은 꼴찌들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 책은, 그런 꼴찌들에게 보내는 갈채다. 작가의 위트와 필력이 돋보이는 대단한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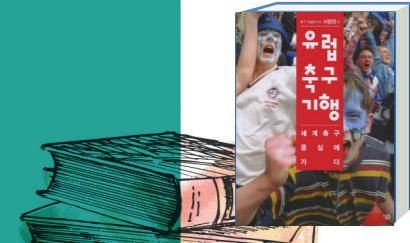
아내가 결혼했다 박현욱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이 도발적인 제목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이혼한 전 아내가 아닌, 현재 나와 살고 있는 아내의 결혼.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의 통념으로 보면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싶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축구로부터 시작됐다. 우선 먼저 결혼한 남자 1번 선수 ‘덕훈’은 레알 마드리드의 열혈 팬. 적당한 호감을 갖고 있던 여자 ‘인아’가 FC바르셀로나의 팬이라는 것을 알고 난 순간부터 그녀에 대한 호감지수는 70점에서 단숨에 90점으로 치솟는다. 그리고 거침없이 숫을 날려 결혼에 골인. 축구와 인생의 절묘한 콜라보레이션 같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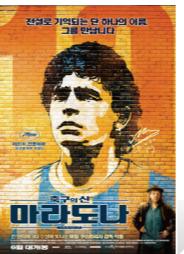


유럽 축구 기행 서형욱

유럽축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축구 기행서. 유럽축구 전문가이자 MBC 등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몇 년에 걸쳐 유럽 20여 개 도시를 발로 뛰며 직접 보고 느낀 유럽축구에 대한 살아 있는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경기 티켓 구매방법부터 경기 시작 전후의 경기장 풍경, 각 구단 및 국가별 관중들의 특성, 각 구단의 역사 및 경기장에 얹힌 사연들, 축구가 유럽인의 일상과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럽축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유럽축구와 한국축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축구팬들이 한국축구의 도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BOOK



축구의 신 : 마라도나(2008)

감독 : 에밀 쿠스트리차 출연 : 디에고 마라도나, 에밀 쿠스트리차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일대기를 다룬 스포츠 휴먼 다큐멘터리.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발생한다. 아르헨티나의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핸들링 파울을 범하여 득점한 것. 그는 ‘신의 손이라는 오명을 얻고서 3분 뒤, 홀로 6명을 제치며 60미터를 달려가 추가골을 터뜨린다. 축구의 신 마라도나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칸영화제 2회 수상에 빛나는 거장 감독 에밀 쿠스트리자는 인간 마라도나를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맨발의 꿈(2010)

감독 : 김태균 출연 : 박희순, 고창석
2001년 나라 독립과 함께 처음 창설한 동티모르 유소년 대표팀의 실화를 그린 영화. 한때 촉망 받던 축구선수였지만 사기꾼 소리를 듣는 전직스타. 원광은 인생역전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곳으로 내전의 상처로 물든 동티모르로 향한다. 커피 장사로 대박을 꿈꾸던 그는 그러나 사기를 당하고 마는데... 귀국 길에 오른 그 순간, 거친 땅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아이들을 목격하고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감독과 어린 선수들의 의지가 눈물샘을 자극한다.



오프사이드(2005)

감독 : 자파르 파나하 출연 : 시마 모바락 샤히, 샤예스테 이라니
월드컵 16강 진출을 결정할 이란과 바레인의 예선 마지막 경기. 이란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가 되어 열에 들떠있지만, 그러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경기장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란의 여자 축구팬들이다. 이란은 스포츠 경기장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국가이다. 만약 이를 어길시 풍기 단속반에 잡혀가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상 무엇보다 좋아하는 축구지만, 직접 응원할 수는 없는 여성 팬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나름의 필살기로 그녀들은 경기장에 잠입하기 위한 불가능한 작전을 시작하는데...



소림축구(2001)

감독 : 주성치 출연 : 주성치, 자오웨이
절룩거리는 다리로 이제 퇴물 취급 받는 왕년의 스타플레이어 명봉. 축구 코치가 되고 싶어도 어느 구단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소림사에서 무공을 익혔던 쌍쌍은 사부가 죽자 하릴없이 빈둥빈둥 가난한 백수로 지내며 만두가게 처녀 아매를 흡모하는 게 유일한 낙. 거리에서 우연히 쌍쌍의 요상한 다리 힘을 발견한 명봉은 쌍쌍에게 축구단을 결성하자고 제안하는데...

문화융성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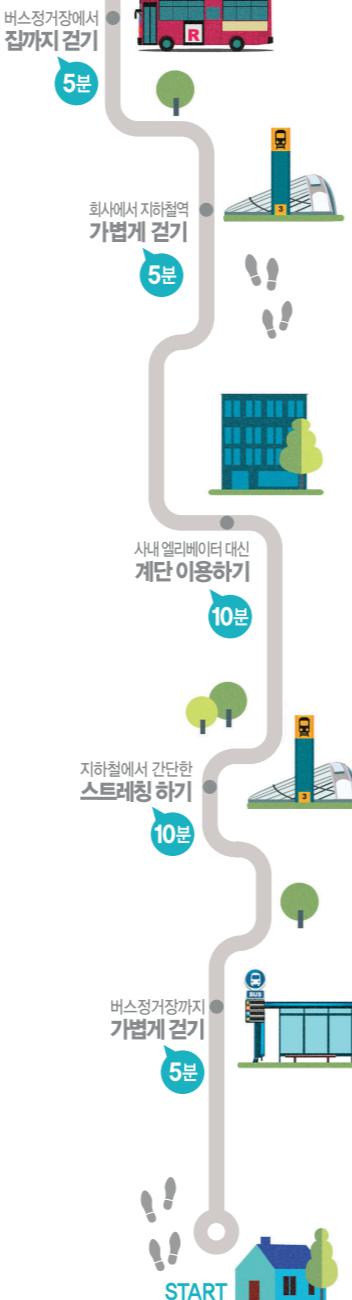
스포츠 7330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7330 완성

하루운동 총량
30분이상!



전·년·의·비·상
전라북도

생동하는 전북의 꿈,
하나되는 한국의 힘

JEONBUK
2018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10·12~10·18

전라북도 일원 (주 개최지 익산시)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나의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스포츠복지지원에서 스포츠산업육성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만들습니다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레저 안전 캐릭터

뿌키와 키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국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